

왜 공동체자유주의인가?1)

15-2-12

박세일

목차

- 1: 배경--4가지
- 2: 공동체자유주의의 인간론/修行論
인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?
- 3: 명제 1: 인간은 귀한 존재이다--人乃天--자유생명체
 - 3-1: 왜 귀한 존재인가?
 - 3-2: 왜 사는가? 삶의 목표
 - 3-3: 왜 자유주의인가? 어떤 자유인가?
- 4: 명제 2: 인간은 함께 사는 존재이다----존재공동체
 - 4-1: 왜 공동체는 중요한가?
 - 4-2: 어떤 공동체가 바람직한가?
- 5: 공동체자유주의의 經世론/정책론
 - 5-1: 국가구성원리/제도화 원리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
 - (1) 국가인가 민간인가? -중앙인가 지방인가?
 - (2) 補充性과 戰略性의 원리
 - (3) 민관을 초월한 자유공동체
 - 5-2: 국가정책원리/국가전략원리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
 - (1) 民本的 민주주의 (2) 人本的 자본주의 (3) 弘益人間的 교육
 - (4) 국제관계와 통일전략
 - 5-3: 정책추진원리로서의 공동체자유주의
 - (1) 現場주의와 當事者주의 (2) 歷史주의와 協治주의
- 6: 맺는 말

1) 2015년 2월 12일 한선재단 목요세미나 발제문 초고임.

1: 배경--4가지 ---공동체자유주의는 왜 등장?

(1) 삶의 철학이 새롭게 필요한 시대----개인은 허무/고독불안하고 공동체는 해체되고 --왜 사는지?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? 인간을 보는 올바른 시각/철학을 제시해야---공동체자유주의적 인간관?

(2) 근대/산업화가 끝나는 문명사적 변화기(세계화/지식정보화 속으로)--국가구성 내지 국가개조의 새로운 철학과 원리/파라다임이 나와야-- 21세기 신 국가모델 --이에 대한 답은?

(3) 무엇이 올바른 국가전략/국가정책인가?---이론과 원리가 나와야 하는 두 가지 이유--(a) 정치인들의 포퓰리즘과 이익집단민주주의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국가정책의 혼미/혼란/무원칙이 심하다--(b) 20세기적 舊진보 舊보수의 시대착오적인 정파적 분열/갈등만이 과도하다----그래서 무엇이 올바른 국가정책인지? 무엇이 공론/정론인지? 그 판단기준과 철학을 세워주어야 한다.---여기에 기준/답을 주어야

(4) 선진통일 후의 국가의 모습--통일은 새로운 국가의 창조/건국이다--21세기 국가창조/국민통합의 철학필요--우리의 국가발전원리와 국민통합의 원리를 담은 답을 준비해야 --그 것은 21세기 외국에도 참조가 될 것이다--왜 지금 많은 나라들이 헤매고 있다---사회주의도 신자유주의도/Washington consensus도 Beijing consensus 도 아니고? --어디로 가야 할까?

--이상을 종합하면 새로운 바람직한 세상을 만드는 원리/철학을 찾는 일이 된다. [새로운 세상]은 두 가지를 요구. 하나는 [새로운 인간] 그리고 다른 하나는 [새로운 제도]이다. 공동체자유주의는 어떠한 새로운 인간을 생각하는가?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 하는가?

2: 공동체자유주의(공자)의 인간론/수행론--공자는 인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? 고 보는가?

두 가지 명제를 주장한다

(1) 인간은 귀한 존재/생명이다--그래서 자유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---인간의 존엄성 찾기/자기완성/자아실현을 위한 자유주의

(2) 인간은 함께 사는 존재/생명이다--홀로 살수 없는/행복할 수 없는--존재론 적으로 관계적 존재이다---여기서 공동체주의의 필요가 나온다---개인완성은 사회완성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/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인간화--인간다운/ 인간다워지는 것 없이 개인의 자기완성도 없다--결국 인간의 참가치 실현/완성은 사회 역사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겨야.

요약하면 인간은 자유생명체이고 존재공동체이다. 따라서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--공동체자유주의가 필요하다. 인간의 존재성/실재성에 걸맞기 때문이다.

3: 공동체자유주의 명제 1: 인간은 귀한 존재이다. --人乃天--자유생명체

3-1: 인간은 왜 귀한 존재인가?

두 가지

(1) 사람의 [몸과 생각]은 우주적 노력의 결과이다--무한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의 총합이다--50억년전 태양 45억년전 물 35억년전 생물- 수많은 선조들의 은혜 이웃들의 노동---한송이의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일어나 보다(서정주)--그런데 그 총합이 다 다르다.--unique하다--그래서 귀하다

(2) 인간 속--몸과 생각 이외-- 불생불멸/시공을 초월한 정신적/영적 생명이 있다----이건 개인적 체득의 문제이다--모든 성인들이 神性/성령---佛性-天性/본성---人乃天을 주장한다. --사람이 하늘처럼 존귀하다고---최시형의 대화---무슨 소리인가?--제 며느리가 벼를 찌는가 봅니다---선생 며느리가 아닙니다--그 분이 한울님이십니다--어서 모셔다 이 밥상에서 따스한 밥을 함께 들도록 하세요--신동엽의 금강--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이 다 귀하다고

존귀함 체득의 방법---조선조 시대 선비들의 敬공부/ 正坐 靜慮法--초기불

교의 사마타/위빠사나-- 대승불교의 禪공부--다 같다

(1) 안으로 고요함과 깨어 있음/敬---定

(2) 밖으로 義 --욕망제어--戒

(3) 정려-지혜---慧

(4) 대 사회적 실천---사랑-자비-仁---傳道--安民-下化衆生

3-2: 인간은 왜 사는가?-- 삶의 목표는?

삶의 의미/목표는---본래의 자기를 찾아--사람의 존귀함을 즉 신성 불성 천성을 수양을 통하여 체득한 후 그 체득한 것을 --對 사회적-對 우주적 실천을 하는 데 있다. 그 과정이 바로 자기완성과 타인완성의 동시성취이다. ---成己成物-(중용)---그래서 小我에서 大我(時空이 없는)로--즉 宇宙我로의 확충과정--자아완성 혹은 자아실현 .

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아완성 ---두 가지 의미/ 내적 완성과 외적 완성

(1) [인간의 본성] 속에 있는 하늘의 天爵 내지 천명인 仁義禮智 (맹자)을 확충하는 것--인간 속의 불성을 체득하고 6바라밀--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--을 실천하는 것---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소명에 답하는 것 ----아담스미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同感(sympathy)의 원리를 확대하는 것---쉽게 요약하면---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안하고(義) 내가 원하는 일은 남에게 하는 것 (仁)---자아완성의 길---내적 완성

(2) 각자의 특징/ unique한 관계의 조합/을 살려 이웃을 위한 [사회적 분업]에의 적극 참여하는 것--- /天命/ 召命/行願을 실천하는 것---安民이고 治國平天下---만물(인간사회+ 자연)의 성취를 돕고 화육하는 것---퇴계---초목금수는 천명을 넓힐 수 없지만 인간을 할 수 있다--천하/우주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---자아완성의 길--외적 완성

-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인 조선조의 선비들은 위와 같이 살아 왔는데--오늘 우리는 길을 잃고 있다.---西器/근대적 제도/를 도입하였는데 東道/동양적 정신/를 잃었다---

이상이 공동체자유주의가 생각하는 인간론/수행론이다--그런데 그것이 자유주의와 무슨 관계인가?

3-3: 그런데 왜 자유주의인가? --어떤 자유인가?

공동체자유주의는 왜 자유주의를 주장하는가?

인간/생명은 形成的이다. 고정적이 아니다--생명자체가 자라고 발전하고 변화하는 존재이다/ 生長하는 존재--자기를 스스로 나타내고 만들어가는 존재이다. 즉--자기의 본성/ 인의예지를 발현하고--자기의 uniqueness-천명/소명--을 발휘하기 위해선--자기다워지기 위해서 --스스로의 귀함을 나타내고 만들 수 있기 위해서-- 그래서 소아로부터 大我로 더 나아가 宇宙我로 진화발전하기 위해서---자유가 필수적이다.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[자유생명체]라고 부른다. 자유없이 生長할 수 없고 人乃天을 실현할 수 없다.

지금까지 자유주의--서구의 자본주의--는 기본적으로 [개인적 자유주의]로서 다음의 2가지를 의미해 왔다.

(1) 외적 간섭으로 부터의 자유/ 감성과 人慾의 자유---유럽식/ 영국식/경험론적 자유--liberty ruled by preference--개인의 선호형성과 선택이 이웃/권력/여론으로 부터의 자유--물을 마시는 자유이다--개인주의/법치주의가 나온다--[소극적 자유주의]--어디로 부터의 자유---정치적/경제적 자유

(2) 이성적 자주적 자유--감성과 인욕의 자유라기 보다 理性의 자유--미국식 자유/ 독일식/관념론적 --liberty ruled by reason--自律 自主 獨立으로서의 자유이다--물을 안 마시는 자유--작은 정부론--민족독립운동 등--[적극적 자유주의]--어디로의 자유--라고도--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social liberalism으로 발전 --케인지안/복지주의

---이 두 가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지난 250년간 인류에게 엄청난 물질적 문명개화를 가져 왔다(일인당 180불에서 6600불 까지)--그러나 최근에 인간 존재의 불안 고독 허무 표류 파탄이 심해지고 --이제 이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[非개인주의적 자유주의]/[공동체지향의 자유주의]가 나와야 한다. --동양적 자유주의--공동체자유주의의 자유주의는 [서구적+동양적 자유주의]이고 특히 후자의 중요성을 강조.

(3) 내적 욕구로부터의 자유/ --욕심과 이기로 부터의 자유---私心の 해방
--[해탈/ 깨달음]으로서의 자유--克己復禮의 자유--좀 더 들어가 보면--극
단의 利他와 극단의 利己로부터의 자유--中道/불교의 자유--中庸내지 中和/
유교의 자유--書經--人心은 위태하고 道心은 미미하니 그 中을 잡아라---
사익과 공익의 조화의 자유이다.

더 들어 가보면---자기와 타인의 경계가 허물어진다. --物我一體의 자유/
世界一花의 자유 ---새로운 공동체개념/서구의 공동체개념(어디까지나 개인
주의를 전제로 한 공동체이다)과 다르다-----물을 마실 수도 안마실수도--
大자유/大해방--천하의 만물을 화육하는 자유--聖人の 자유---非개인주의
적 자유주의이다

----자아완성/인간생장을 위해선 자유주의가 필수이고 자유주의에는 서양적
+ 동양적 모두가 필수이다. 그러면 왜 자유주의로 충분하지 않고 공동체주의
가 필요한가? --인간은 함께 사는 존재--즉 인간은 존재공동체이기 때문.

4: 공동체 자유주의 명제 2: 인간은 함께 사는 존재이다. --존재공동체

4-1: 왜 공동체는 중요한가?

공동체자유주의는 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왜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
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가? 그 이유는 --두 가지 이유--하나는 (1) 인
간은 본래가 개체적이기 보다 공동체적 생명이기 때문. 다른 하나는 (2)인
간의 자기실현(자기완성과 타자완성)은 어떠한 공동체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
지기 때문.

인간은 존재론적으로 공동체적/관계적 생명이다.---관념적으로만 독자적
존재일 뿐---실재론적으로 홀로 살 수도 행복할 수도 없는 [존재공동체]이
다---공간적으로 사회/국가/자연(사회 및 자연공동체)과 相補的/相生的 관계
이고 시간적으로-- 가족/민족(역사공동체)---시간흐름의 속에서 존재한다.
--그래서 사실 내 속에 他者/ 自然/ 先祖가 있다--맹자/퇴계--만물이 나에
게 다 갖추어 있다/ 天地一家----결코 고독한/가벼운 존재 아니다--나와
남을 대립적으로만 보면 --자기의 존재성/ 공동체성을 부정--곧 자기부정

----그래서 중요한 것은 (a) 인간의 자아완성은 공동체를 떠나 가능하지 않다.--타자와의 관계를 바꾸면서 자기를 바꾼다--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없다--소인/죄인이 없으면 군자/성자가 가능하지 않다--(b) 인간의 행복은 공동체를 떠나 가능하지 않다---아담스미스--인간의 최대의 행복감은 상호공감(mutual sympathy)에서 온다.

한 가지--공동체 안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? ---정답은 相反相成이다---陰과 陽이 서로 함께 작용해야 춘하추동도 생노병사도--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 준다--태극을 보라-- or 아니고 and 이다--관용-존중- 타협- 공존- 회통- 조화---太極(거다란 표준 /지극한 중심)의 정신은 소아를 떠나 세계의 중심에서 대립자의 의견을 경청 포용 상생을 도모하도록---중용의 中和를 보면---中은--마음을 우주의 중심에/중천에 떠있는 해같이--그리고 和는 --모든 존재/주장의 각각의 주체성의 인정에서 출발--조화로--이러한 관점에서 모순의 문제 풀어라

4-2: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?

어떠한 공동체인가? 가 나의 자유에 --자기완성과 타자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--그래서 소중히 해야 하고--여기서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? 어떤 공동체가 바람직한가? --답은 [홍익인간 공동체론]--4가지 특징을 가진 공동체여야 개개인의 自己완성과 他者완성이--修己와 治人--上求보리와 下化중생이 보다 용이하지 않을까?

(a) [法治 공동체]여야 한다--자유공동체 성립의 조건--공정한 행위준칙으로서의 법의 지배-

(b) [道德 공동체]--善한 행위 준칙으로서의 도덕 즉 仁義禮智의 보편화가 있어야---보다 최소조건으로 하면 [禮義廉恥](管子: 예의염치가 없는 나라는 망한다)가 있는 공동체여야.

(c) [均化 공동체]여야 한다.--자아실현이 가능하려면 --균화 즉 균형과 조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. 즉 내적 질서가 [연대성]과 [보충성]의 원리에 기초해야--수평질서는 자발적 연대성/ 지배복종 아니고-- 수직질서는 보충성/ 권위주의 아니고----그리고 성장의 문제도 복지/빈곤/차별의 문제도 연

대성과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

(d) [歷史와 自然공동체]----예 가족을 통하여 조상의 전통과-지혜가 전달
--국가에서도 선조들의 훌륭한 행동/고결한 희생/대담한 업적을 기리고 가르쳐야----자연보호가 아니라 자연과 일체--物我一體가 되는 --/참고로 서구에선 자연을 야만/反문명으로 보았다.

이상을 요약--공동체 자유주의는 인간은 [자유생명체]이고 [존재공동체]이다 이라고 주장한다

(1)사람은 [자유생명체]이고 귀하고 곧 하늘이다--여기서 자유주의가 나왔다----삶의 목표---居敬--窮理--力行--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--우주아를 확인하는 것--내 안의 성령/불성/천성을 체득하고---

(2) 사람은 [존재공동체]이다--그래서 함께 사는 존재--함께 나누고 땀 흘리고 동고동락---여기서 공동체주의가 나왔다----그래서 대동사회/불국정토/지상천국--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/홍익인간사회-이루면서 살아가야
--그래서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여야 한다---그래야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[새로운 인간]이 등장---다음은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[새로운 제도]가 필요한데 공동체자유주의는 어떠한 제도론을 주장하는가?

5: 공동체자유주의(공자)의 경제론/정책론

5-1: 국가구성/국가제도화의 원리로서의 공자

배경- 새로운 국가구성원리가 필요한 배경은 5가지--(1) 세계화와 정보화가 hyper connectedness 시대 창출--一國主義 안되고 상호관계성/의존성이 지배적--(2) 민주주의의 혁명적 확산---정치적 요구의 폭발--명과 암 (3) 새로운 위험사회/risk society 등장--빈부의 양극화--고용사회의 변화--고령화--ecological 위험 --(4) 新정신주의--정신영성이 중요해지는 시대--정신개벽의 시대---(5) 통일시대의 도래--통일이후의 국가비전--理想國家가 나와야

기존의 근대화시대의 패러다임--Governance가지고 안 되는 시대--21세기 새로운 국가모델--새로운 거버넌스의 모색---공동체자유주의에서 그 답을 찾아야

3가지 기본방향--강조해야

(a) 국가발전원리로서의 자유주의---개개인의 창의/혁신/개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--자유주의 지속강조--우리 아직 선진국 아니고 북한개발문제 까지 ---그래서 [발전주의] 지속 필요--특히 교육개혁--이제는 average is over의 시대--산업화 시대처럼 평균만 양산하면 양극화 결과-

(b) 자유주의 속에서도 [비개인주의적 자유주의]가 보다 강조되어야---정신이 가난한 시대---정신대국/ 영성문화 등의 길 열어야--그리고 성장의 문제도 복지 문제도 도덕/영적 공동체 강조 통하여--특히 앞으로 홍익인간 사상과 선비정신 연구 확산시켜야

(c) 국민통합원리로서의 공동체주의----상호의존성 강화의 시대---새로운 위험사회의 과제---고령화에 대비--복지/양극화문제 대비--자원과 환경문제 대비--통일시대대비---과잉민주주의와 과소민주주의 대비--이 모두의 답을 공동체주의 속에서 찾아야---예컨대 복지문제--복지의 3종류---민족 복지/국민복지/계층복지--주체에 따라--국가복지/기업복지/ 가족복지/ NGO 복지/ 종교복지 등등--우리나라는 계층복지와 국가복지만 가지고 논쟁--안 된다.

기본방향---자유도 공동체도 함께 가도록 해야 --선택 아니고--or 아니고 and 이다--특히 비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자연스럽게 함께 간다. ---만일 [자유와 공동체가 충돌]하는 경우는 어떻게? --어떻게 optimal combination을 찾을 것인가?

3단계 접근법

제 1단계---개인주의적 자유주의로 시작--우선 [시장주의]로-- 다음은 [민간주도]/[지방주도]로 해결을 먼저 생각--세계화 자유화 규제축소 법치주의 경쟁촉진 재산권 보호 철저한 지방분권(지방주권) --등--시장주의와

민간주도로 문제해결

제2단계---시장과 민간 해결이 안 되는 부문---공동체적 해결 --정부가 나선다--두 가지 원리에 따라---[보충성의 원리]와 [전략성의 원리]에 따라--

(1) 시장/민간과 지방이 못하는 것만 [보충성의 원리]에 따라 정부/중앙이 나선다--사실 보충성의 원리 속에는 민주성의 원리가 함께 간다.--이것이 중요--복지와 성장간의 대립갈등도 --보충성에 따라 하면--가능한 현장에 소 자율적으로 하면-- 자연 민주성이 작동한다.

(2) 그리고 국가전략의 분야는 정부/중앙이 나선다 --세계화 정보화로--상호관계성이 높아지고 speed가 높아져 국가도 전략적으로 움직여야--이제 국가전략의 시대--

제3단계---시장실패/정부실패/시민사회실패의 3가지 실패를 줄이는 노력--자유/자유사회의 質을 그리고 공동체/정부의 質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해야-----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유주의적 해결(시장/시민사회)과 공동체주의적 해결(정부)의 차이를 줄여나가면--두 방식 각각의 [거래비용]을 최소화하게 되어 ---시장과 정부와 시민사회가 모두 협치하는 [자유공동체]로 거듭나게 됨.

5-2: 국가전략/국가정책원리로서의 공자

기본방향---자유주의를 먼저 그리고 공동체주의에 의한 보완의 방식으로--그리고 자유의 질과 공동체의 질을 높이는 노력

(1) 문제1: 한국 민주주의 문제/過小 過剩민주주의--어떻게 [民本的 민주주의]로

자유주의를 적용---過小민주주의부터

(a) 소수자 문제--다문화--탈북동포--조선족 동포 등

(b) 정치의 독과점구조--기득권 양당제--정치적 선택의 자유제한--정당개혁(가치정당/정책정당으로) 선거개혁(소선거구제 혁파)--가치중심의 온건 다

당제로

(c) 사회적 유착--끼리끼리 특권/범죄아 정피아/ 부정부패--일도양단--법치주의

공동체주의 적용--過剩민주주의

(a) 집중과 분권의 조화--대중성과 전문성의 조화--제왕적 국회/제왕적 이익단체 등 막아야--국가의 힘/국가능력(state capacity)/국가의 국정운영능력 강화해야--산으로 올라가선 안 된다--특히 변화와 개혁의 시대--새로운 21세기 국가모델이 필요한--이를 위해 대대적 국가개조가 필요한 시대---그러나 이제는 협치형으로

(b) 정치지도자 교육--국민의 민주시민교육 --포퓰리즘과 暴民主의 막아야---선비정치인 나와야--內聖外王이 나와야 --현재 정치의 賤民性/ 反민본성 극복해야 --지도자에 대한 새로운 존중--leadership 과 followership

(2)문제 2; 한국 자본주의 문제--어떻게 低성장과 양극화를 극복--어떻게 [人本的 자본주의]로 갈 것인가?

자유주의를 적용--

(a)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성장우선--성장하려는 의지 활성화--반독점 반유착 조세평등 재산권 보호, 법치 규제혁과 개방과 세계화---특히 정책의 예측가능성/안정성 중요--[정책포퓰리즘] 막아야

(b) 저성장문제는-- 단기적으론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으로-- 중기적으로는 구조개혁--금융 공공 교육 노동 복지 지방발전 등의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회복 그리고---- 장기적으로는 선진통일의 시대 열어야--새로운 경제영토--한반도 통일전략으로--그래야 저성장문제 해결

공동체주의로 보완---

(a) 단기적으론 최저빈곤층 대책강화-- 중기적으론 복지개혁--新복지구조제시---장기적으로 정부복지 기업복지 가정복지 종교복지 등의 균형과 조화---새로운 삶의 style/pattern 제시--특히 고령화시대 대비---정신과 영성이 중요

(b) 21세기적 민관협치형 산업정책/국가전략필요---미래과학기술 발전동력

/통일후 동아시아시대 발전동력--

(c) 공동체정신--선비정신/보살정신/성자정신--선비기업가/노동자/소비자 등
--자본주의의 천민성/황금주의 극복

(3) 문제3 한국의 교육문제--어떻게 弘益人間的 교육을?

자유주의적 --

(a) 자유주의란 학생의 자유와 선택/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확대하는 것---
평준화폐지가 바람직---최소한 --장단점을 충분히 알려준 다음 지역주민에
게 물어라--학교/선생 경쟁하도록 --정부규제 줄이고 이익단체 영향력 줄
이고---최고의 인재양성을 목표--average is over

(b) 개방화/세계화----교육부도 경쟁하도록--교육감과 지자체 장 함께--교
육분권화하고 지역간 교육경쟁--요약하면 국내외 교육경쟁 촉진

공동체주의적 --

(a) 경쟁이 불가능한 층/ 학습부진하 극빈층---특별대책

(b) 개인자유선택 안하는 분야--인성/역사/문학/철학/기초과학연구---예컨
대 인성교육은 율곡의 격몽요결이 최고--

(c) 국가전략--미래교육분야--미래산업분야--현장에서의 지속적 교육혁신
이 가능할 school governance 개혁 --교사양성분야 등등

(4): 문제4: 국제관계--통일전략

자유주의적--

(a) 자유주의 국가/ 내지 자유주의세력과 연대--함께 global issue해결--인
권 환경 테러 자원 등--외교 전략 추진

(b) 북한안과 밖의 자유주의 세력/개혁개방세력 지원 연대--통일전략--공산
주의 체계제혁--항상 先 개혁개방사상 後 개혁개방정책----유일절대사상
깨야 통일가능-

공동체주의적--

(a) 자유주의 세력과 함께 자유주의적 협력공동체/G-20/UN 만드는 데 앞
장서야 ---인권 빈곤 평화 핵 테러 환경 등 --더 나아가

(b) 지역공동체운동 적극 참여--지역통합/Asian+ 3 등에서 지구촌 통합으로

--[열린공동체주의]

(c) 통일 전후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/ 안보협력체 비전제시----21세기 동아시아 평화시대 주도---동아시아 비핵회랑

--한마디로 자유주의세력과 연대하여 세계문제를 공동체주의로 대처

5-3: (개별) 정책추진원리에 대한 공자 --예컨대 연금개혁은? 무상보육은? 헌법개정은? 어떻게 추진할까? --공동체자유주의의 답

1단계---지도자가 나서서 왜?를 설명하고 [公論의 장]부터 만들라--이제 정책적으로 정직한 지도자가 필요---세계의 변화를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--정부가 해야 할 것 국민이 해야 할 것 등 설명--큰 방향과 원칙 설명하고---여야지도자들과 반드시 사전 상의하여 공감/지지 얻은 후---대 국민 설명 후에 중립적 이론과 현장 전문가들에게 공론의 초고를 만들도록

2단계---공론 초고가 나오면 이를 중심으로 국민과의 소통/ 당사자들+ 주립적 시민사회와의 토론--사회적 합의의 장을--공론의 進化--시대적 正論으로 만든다.

3단계---정치권의 결단과 정부의 실행

이 과정--공론/정론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--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?

(1) 자유주의---[現場주의]와 [當事者주의]--왜 [현장의 당사자]들이 제일 잘 알고 제일 정보/나름의 해결책도 많다--그들에게 묻고 상의하라--누가 가장 많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--전지전능자인지--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주의를 선택하는 것이다.

(2) 공동체주의---[歷史존중]과 [協治주의]--당사자와 非당사자간의 협치가 중요하다--그래야 개체성과 공동체성의 조화가 가능--이것이 [국가/사회 공동체]를 존중하는 자세.---그리고 역사의 관성/path dependence을 존중하라--역사의 경험/지혜를 존중하라--과거 정책연구와 이웃 정책연구가 필요--실패를 줄인다--[역사공동체]를 존중하는 자세--우리나라에서 특히 이

것을 안 한다--전직 장관들이 책 써야--경제정책사를 써야

6: 맺는 말:

공동체자유주의자는 두 가지에 답해야--(1)어떻게 나를 바꿀 것인가--환언하면 어떻게 새로운 [인간]을 만들 것인가 (2)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--어떠한 원리/철학 위에서 새로운 [제도]를 만들 것인가?

공동체 자유주의적 삶의 길--成己成物--자기완성---자기 속의 하늘의 뜻/본성을 확충하고--- 천하만물의 화육에 기여--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--大同사회/불국정토/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--[弘益人間의 世界國家]를 만드는 -->동방예의지국/동방의 군자국+ 세계선진일등국가/세계평화중심국가--정신개벽과 물질개혁이 함께 일어나서

산업화-->민주화-->선진화-->통일-->홍익인간의 세계국가로

다시 강조하지만 자유주의는 국가발전/개인완성의 원리이고 공동체주의는 국민통합원리/ 개인행복원리이다--그래서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여야 올바른 삶이 가능하고 올바른 세상이 나온다.--자기완성과 만물의 화육이 가능하다. 成己成物이 가능하다

앞으로 정부부처 개편 시 두 부총리제를 두면 어떨까?

- (1)[홍익인간원]---국민개개인의 자아완성을 위하여 --교육 과학 문화 종교 고용 등 --공동체자유주의적 인간
- (2)[국가기획원]--21세기 국가모델을 위하여 --통일 국방 외교 경제 산업 국토 등 --공동체자유주의적 제도
- (3) 정부연구기관으로 [국가전략원]을 두어 두 부총리를 지원한다.--공자적 인간 공자적 제도를 연구하여 국가비전과 국가전략을 세운다